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1호 【루계 제2615호】

주체109(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음력 8월 2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가 10월 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해당부서 부장들과 제1부부장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전당, 전국, 전민이 8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 제8차대회를 빛나게 맞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공격전을 벌려야 할 주객관적요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품들여 준비해온 당창건 75돐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고 새해 정초에 소집되는 당 제8차대회를 자랑찬 투쟁성과로 빛나게 맞이해야 할 무겁고도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정치적사변으로 될 당 제8차대회까지는 80여일 남아있다.

우리는 류례없이 엄혹한 올해의 시련과 난관들을 과감히 정면돌파하며 값비싼 력사적공적들을 이룩하였지만 이룩한 승리와 성과에 도취되여 만세나 부르며 기세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아직 우리앞에는 무시할수 없는 도전들이 버티여서있으며 올해안에 도달해야 할 투쟁목표들도 아름차게 놓여있다.

과감한 련속공격전으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이어나가며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투쟁방식이며 당대회를 맞이할 때마다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벌려 위대한 전변의 력사를 안아오고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온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당 제8차대회까지 남은 기간은 올해 년말전투기간인 동시에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마지막계선인것만큼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다시한번 총돌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창건 75돐을 승리와 전진의 대경사로 빛내이고 그 기세를 더욱 앙양시켜 올해의 투쟁을 자랑스럽게 결속하며 당 제8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년말까지 80일전투를 전개할데 대한 책임적이며 중대한 결심을 내리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80일전투의 기본목적과 전투기간 견지할 주요원칙, 이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부문별목표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당, 전국, 전민을 80일전투에로 총궐기시키기 위하여 전투적구호를 제정하고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으로 조선로동당창건 7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군대의 주요간부들에게 군사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동결정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조선인민군 원수칭호가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동결정서를 전달하시고 당과 인민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시며 그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에서 토의된 혁명적조치들은 조성된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더 높은 발전단계에로 이행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중대한 전환적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진정한 인민의 명절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전인민적인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장장 75성상 자주의 기치높이 준엄한 폭풍의 년대들을 거창한 변혁과 승리로 빛내이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온 위대한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이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떼여놓고 결코 말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정치리념, 정치방식도 인민대중제일주의이고 그 존재방식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이다.

세상에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혁명의 승리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단결의 승리라는 드팀없는 립장,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열화같은 사랑으로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창건일에 인민들은 끝없는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는 부름으로밖에 달리 칭송할수 없다는것이 이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다.

오늘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여 10월 10일은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더욱 빛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다고,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위대한 사색과 구상속에는 로동자, 농민,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문제도 있고 새 세대들을 미래의 주인공들로 키우는 문제,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과 부모없는 원아들의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수천만인민의 운명문제가 다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지향과 제기되는 난문제들을 속속들이 다 헤아리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정책에 담고 계신다.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하나에서 열백까지 인민의 소망과 요구가 그대로 담겨있으며 인민들의 피부와 살에 직접 와닿는 절박하고 실질적인 대책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이 그대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백년대계의 설계도가 되고 현대문명이 응축된 현대적인 거리들과 도시들, 인민들이 기쁨에 넘쳐 웃고 떠드는 특색있는 문화휴양지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전변되였다.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인민의 행복과 웃음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없으며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보다 더 귀중한 전략자산은 없다.

—큰물피해복구사업을 단순히 자연의 피해를 가시는 건설공사나 생활복원에만 귀착시키지 말고 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단결을 다지는 혁명적명절로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되도록 지향시켜야 한다.

—지금은 우리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이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정과 사랑으로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헌신의 자욱자욱, 조선로동당의 중대결단에 의해 자연의 대재앙이 휩쓴 땅우에는 그 흔적을 말끔히 가신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들이 10월의 대지우에 희한한 현실로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진정 공화국인민이 누리는 모든 기쁨과 행복은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의 천만고생과 맞바꾼것이다.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을 막기 위한 완벽한 방역조치를 취하시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며 걱정하신 자애로운 어버이, 자연의 광란으로 초래된 수재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셔주시려 위험한 피해현장을 남먼저 밟으시며 현지에서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신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재난의 흔적을 가시며 선경마을의 자태가 드러난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여 자기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선언하시고 사회주의향기를 내뿜는 피해복구한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시여서는 인민의 보금자리가 태여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오면서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던 이 나라 인민들이다.

수재민들을 위해 당중앙위원회가 떨쳐나서고 국가의 인적, 물적잠재력을 총집중하며 방선을 지켜선 인민군 정예부대들을 피해복구전투에 진입하게 한것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조선로동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피해복구전구로 달려간 전투원들은 재앙의 난파도가 밀려들었던 땅우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피여날 정든 보금자리를, 인민의 마음속에는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는 일심단결의 성새를 쌓은것 아니겠는가.

인민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의리의 결정체, 이것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선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이다.

정녕 기쁨의 10월, 진정한 이 인민의 명절에 온 나라 인민이 터치는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의 환호성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멸사복무의 자욱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분출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력사

국제사회가 격찬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누리에 존엄떨치며 승리와 영광의 75성상을 수놓아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인민과 함께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향도하는 과정에 불패의 당, 존엄높은 당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왔다.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투데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해온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력사라고 할수 있다.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은 한시도 인민과 떨어져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왔다.

인민대중은 조선로동당의 생명의 뿌리이다.

에짚트신문 《알 나쉬르》는 이렇게 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만을 따르고 옹위하는 인민의 힘에 떠받들려 전진하여왔다.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인민의 요구와 의사는 곧 로선과 정책작성의 출발점이고 기준이다.

조선로동당이 승리할 래일을 확신하며 배심든든히 강국의 길을 선택할수 있은것은 자력자강의 강자들인 조선인민의 불굴의 힘, 정신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10월의 강산에 넘치는 인민의 환희

인민사랑으로 빛을 뿌린다

10월의 하늘은 맑고 창창하다. 인민의 마음도 기쁨과 환희에 잠겨있다.

인민이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이 창건 75돐을 맞으니 누군들 환희에 가슴부풀지 않고 격정에 잠겨있지 않으랴.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봄내 여름내 애써 키운 낟알들을 거두어들이는 농업근로자들의 얼굴들에도 기쁨과 랑만이 어리여있다.

10월의 명절은 조선로동당의 명절이자 진정한 인민의 명절이다.

세상에 각이한 리념과 명칭을 가진 정당들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진정으로 당이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한마음한뜻으로 따르는 것은 이 땅우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화폭이다.

10월의 강산에 가득 넘치는 인민의 환희는 어머니당으로 믿고 따르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고마움의 분출이며 당을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준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이다.

조선로동당은 70여성상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정치,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자기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존엄높은 불패의 당, 어머니당으로 빛나는 려정을 새겨왔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각계층 근로자들을 망라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마크를 제정할 때 마치와 낫, 붓을 그려넣도록 하시여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시였다.

그날 그려주신 당마크도안에는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품어안고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인민의 당으로 건설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도서 《인민들속에서》는 1962년 3월에 제1권이 나온 때로부터 수많은 회상실기를 묶어 100여권이 출판되였고 지금도 계속 발행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인민적풍모의 대화원이고 인민사랑의 대서사시라고 할수 있는 도서에는 로동자들의 기름묻은 손을 잡으시고 허물없이 이야기하시며 그들이 먹는 국맛도 보아주신 공장의 구내길이 있고 대동강으로 흘러든 서해의 짠물피해정형을 알아보시려 논물을 성큼 떠서 맛보신 포전길도 있으며 혈연의 정으로 화목한 사회가 살려낸 아이를 안으시고 로동당의 아들이라고 거듭 외우신 가슴뜨거운 화폭도 새겨져있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으시고 하나의 정책을 작성하고 하나의 시책을 내놓으시여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이의 인민사랑속에 토지개혁법령,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등과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비롯한 인민을 위한 정책과 시책들이 나올수 있었고 조선로동당은 장구한 기간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존엄높은 당으로 될수 있었다.

이렇듯 일찌기 그 어느 나라의 인민들도 체험해보지 못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감복하여 이 나라 인민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목청껏 노래해오고있는것이다.

자신의 한생을 하나로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와 같은 인민사랑의 명제를 내놓으시고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펼치시여 조선로동당이 진정한 어머니당으로서, 인민의 권리의 대표자, 리익의 수호자, 승리의 향도자로서 영광스러운 로정을 줄기차게 이어올수 있게 하시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인민의 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주체101(2012)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자신께서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고 수령님들처럼 인민을 사랑하며 뜨거운 진정과 심혈을 깡그리 쏟으시는것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으로 간주하신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멸사복무의 길을 이어가신다. 일군들에게도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장군님의 영상으로 새겨안고 인민을 위한 일에 한몸바쳐야 하며 거기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이런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끝없이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의 자욱우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나고있다.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행복의 창조물이 차례질 때면 그리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고 인민이 불행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그 불행을 하루빨리 가셔주시려 수천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려정우에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으로, 당풍으로 되였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헌신이야말로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수 없는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 아름다운 세월을 낳는 귀중한 원천이고 자양이다.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것이 조선로동당이 응당 해야 할 최우선과업중의 하나이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는 당중앙위원회가 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이다.

천만식솔의 마지막 한사람까지 다 품어안아 시련의 난파도속에서 굳건히 지켜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속에 자연의 재앙을 당한 수재민들이 군당청사에서 생활하고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일하는가 하면 재해지역으로 최정예수도당원사단과 인민군부대들이 급파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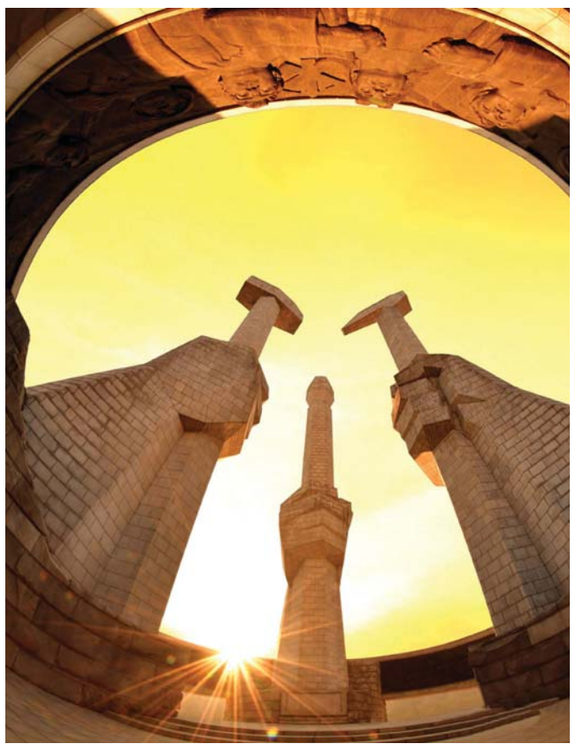
이 숭고한 사랑속에서 불과 수십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자연재해지역들에는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련속 솟아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이 날로 더욱 꽃펴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이 부어주시는 인민사랑속에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성격은 더욱 뚜렷해지고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빛나고있는것이다.

언제나 인민과 고락을 함께 하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이 있어 인민은 그 품을 어머니라 부르며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당을 따라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움없이 기세충천, 용기백배하여 나아가고있는것이다.

10월의 강산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과 환희는 위대한 불패의 당, 은혜로운 어머니당에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 열렬한 찬가의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10월명절 축하합니다

기쁨의 명절날에

당창건 75돐은 우리 인민모두의 기쁨의 명절이다.

그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 우리 공장의 종업원들도 생산에서 더욱 앙양을 일으키며 이날을 마중해왔다.

드디여 기다리던 날이 눈앞에 왔다.

10월의 대축전장에서 어머니당의 생일 75돐을 경축하게 될 기쁨의 장면들이 눈앞에 어리여온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시위군중들이 목청껏 웨칠 만세의 함성도 들리여온다.

그날엔 나도 경축시위참가자는 아니지만 **김일성**광장 주석단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목청껏 만세를 웨치리라.

평양가방공장 작업반장 김현희

마음은 수도의 광장으로

내 마음은 지금 **김일성**광장에 가있다. 아마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이 그곳으로 달려갈것이다.

성대한 행사가 펼쳐질 수도의 광장.

우리 당이 어떤 당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인민을 위한 당이다.

10월명절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되게 하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거창한 피해복구전투를 조직해주시였다.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행복만을 거듭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온 나라 인민은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로동당만세소리를 더 높이 울려갈것이다.

평양시 선교구역인민위원회 부원 리금철

일심단결의 위력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 75돐을 뜻깊게 맞이하자고 머나먼 북부피해전투장에서, 일터와 마을에서 기적과 위훈을 아로새기며 달려온 우리들이다.

고난과 시련이 중중첩첩 막아나섰지만 우리는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연의 광란도 세계적인 보건위기도 굳건히 이겨내며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되였다.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현실로 꽃피우고 경축의 광장에서 그이를 우러러 터치는 우리 인민의 만세의 함성소리와 지축을 울리는 철의 대오의 장엄한 행진을 보면서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다시금 느끼게 될것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 과장 박철석

어머니당

《고향의 어머니는 15년세월밖에 나를 키워주지 못했지만 당에서는 60여년세월 나의 생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었다.》

이 말은 남조선에서 살다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의 품에 안긴 시인 오영재선생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한 말이다.

전라남도 장성군 소룡리(당시)가 고향인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자기 키보다 더 큰 장총을 메고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15살이였다고 한다.

인민군대에 편입되여 생활하던 그는 어느날 어린 누이동생을 등에 업고 70리길을 걸어온 어머니와 만나고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뉘엿뉘엿 석양이 저무는무렵 먼지이는 신작로를 따라 멀리 사라져간 어머니가 그가 마지막으로 본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 고향의 모습이였다.

사랑과 증오가 끓어오르는 전장에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은것은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잘 싸우라고 한 어머니의 절절한 당부였다.

장군님을 따라서.

그 길이 자신과 민족을 위한 얼마나 옳은 길이였는가를 오영재선생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나날이 페부로 절감하였다.

그는 공화국에 혈육이나 친척이 하나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를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손길이 있었다. 당에서는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하게 그의 생활과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었다.

오영재선생은 자신의 소망과 포부대로 문학공부를 하였고 시문단에 서게 되였다.

당과 국가의 한량없는 보살핌속에 창작의 나래를 한껏 펼친 그는 《어머니의 당부》, 《조국이여, 감사를 드리노라》, 《사랑의 미소》, 《장군님식솔》, 《조선의 힘》 등 1 000여편을 헤아리는 시와 가사들을 창작하였다.

《대동강》, 《흰눈덮인 고향집》, 《인민의 아들》, 《내 민족, 내 피줄》과 같은 시집들도 내놓았다.

지난날 망국민의 후손으로 태여나 막돌처럼 버림당해야 했고 또다시 외세의 군화발밑에서 짓밟히며 핍박속에 연명해야 했던 가긍한 운명의 소년이 뭇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공화국의 재능있는 시인으로 성장하고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으로 되기까지에는 그의 걸음걸음을 살펴주고 손잡아 이끌어준 다심한 어머니당의 손길이 있었다.

어머니당.

세상에 당은 많아도 어머니당으로 불리우며 인민이 한결같이 따르는 그런 위대한 당은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시인 오영재선생의 한생도 그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설

인민이 드리는 꽃다발

뜻깊은 10월의 광장에 아름다운 꽃바다가 펼쳐졌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이한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이 삼가 엮은 마음의 꽃다발들이 펼쳐놓은 거대한 꽃바다이다.

온 나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경축하는 10월명절은 얼마나 환희롭고 가슴벅찬것인가.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를 광휘롭게 수놓아온 조선로동당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따라 끝까지 한길만을 걸어갈 공화국인민들의 활화산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게 될 성대한 경축행사들.

한순간이라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몸가까이에서 우러러보고싶은 강렬한 소원을 안고 심장으로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열광적으로 꽃다발을 흔들 각계층 인민들의 격동의 모습이 어리여온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뵙고싶었습니다.》

《아, 우리 원수님!》 …

온몸을 그대로 그리움으로 불태우며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달려온 이 나라 인민들.

그 격정은 축하의 고무풍선들이 하늘을 뒤덮을 경축행사장에서 최대로 폭발할것이다.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지게 될 환희의 꽃바다, 그것은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의 마음을 제일로 뜨겁게 헤아려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의 마음, 조선로동당만을 믿고 따를 충정의 맹세가 어린 꽃바다이다.

의무감으로, 돈으로, 권력으로는 절대로 그런 진정을 얻을수 없다.

이 세상 어느 인민도 보여줄수 없고 지어낼수는 더욱 없는 인민의 그리움의 눈물은 이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장장 75년세월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지켜 조선로동당이 헤쳐온 험난한 길은 몇천몇만리이고 한몸으로 막아준 찬눈비는 그 얼마이던가.

공화국이 걸어온 력사의 그 어느 굽이에나 조선로동당의 헌신과 로고, 정과 사랑이 새겨져있다.

조선로동당이여, 무슨 말로 그 위대함을 다 전하며 감사와 영광의 노래를 드리랴.

이 나라를 칭칭 동여매였던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성과 이름마저 빼앗겼던 인민들에게 주인이라는 제일 귀중한 이름을 주었다.

해는 솟아도 캄캄하기만 하던 하늘아래서 천대받던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람홍색공화국기 높이 날리는 새 조선의 봄을 안겨주었다.

강대성을 자랑하던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때려부시고 재더미만 남았던 빈터우에 천리마를 불러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웠다.

이 땅에 사는 누구나 어머니라 목메여 부르는 조선로동당, 불러보면 가슴에 먼저 와닿는것은 한없이 자애롭고 웅심깊은 그 눈빛이다.

멀리 있을수록 마음속에 더 가까이 품어 천백가지 소원도, 남모르는 괴로움도 속속들이 헤아려주는 어머니의 눈빛.

슬픔은 덜어주고 기쁨은 더해주며 천만자식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느라니 자연의 광란이 휩쓴 상처입은 나라의 곳곳마다에 보다 훌륭한 인민의 삶과 행복의 터전들을 안겨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렷이 안겨온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공화국의 최북단 라선땅에서 새 집들이경사가 났을 때 한 녀인이 들려주었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큰물이 밀려와 자기 집의 살림방은 모두 뭉청 떨어져나가고 창고만 남았던 그날 그 벽체에 남은 제비둥지안에는 3마리의 새끼들이 엄지를 기다리며 애타게 울고있었다고 한다. 얼마나 번개가 무섭게 쳤고 폭우가 쏟아졌는지 그 엄지는 어디엔가 날아가버리고 이틀이 지나서 들여다보니 새끼들은 모두 죽어버렸다고 하면서 그 녀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마도 우리 원수님 아니시였으면 우리도 이 란리에 엄지잃은 제비들의 불쌍한 신세가 되였을것입니다. 정말 원수님 없인 우리는 못삽니다.》

이것이 어찌 이 녀성만의 심정이랴.

얼마전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인민들은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새 집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앞에서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감사의 큰절을 삼가 드리였다.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새집들이소식, 발전소완공소식…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있어 이 땅우에는 사회주의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리고있다.

진정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인민이 터쳐올릴 환호성은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분출이며 인민이 펼치는 꽃바다는 그대로 조선로동당에 대한 감사의 꽃다발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우리의 집은 당의 품입니다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로동당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집니다.

조선로동당!

어이하여 그 이름은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가슴속에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출렁이는것입니까. 어이하여 그 품은 누구나 아이적 목소리로 찾고 부르며 한달음에 달려가 큰절을 드리고싶어하는것입니까.

한생에서 귀중한 시절을 남녘의 어둡고 차거운 철창속에서 다 보낸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있어서 조선로동당은 원쑤들의 사나운 채찍과 달콤한 유혹에도 드놀지 않은 마음속 기둥이였고 가물끝에 내리는 단비마냥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준 따사로운 해빛이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이라는 억센 기둥이 없었다면 귀신도 몸서리칠 그 지옥에서 우리들은 장장 수십년세월 죽음의 고비를 이겨내고 영원한 승리자로 될수 없었을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변화와 퇴색을 가져오지만 온 나라 인민들을 기폭에 감싸안고 준엄한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 나붓겨온 우리의 당기는 지금 이 땅을 더 붉게 물들이며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당창건 75돐을 맞는 뜻깊은 이 시각 저는 끓어넘치는 감격과 다함없는 고마움을 담아 온 나라 인민이 안겨사는 그 위대한 품, 조선로동당의 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저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우리 집

사람들은 누구나 당의 품은 우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집, 세상에 이 말처럼 따뜻하고 소중한 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집없는 나그네의 설음을 설음중의 설음이라 한것도 바로 그래서일것입니다.

집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아마 남쪽에서 수십년간 먹방생활을 해온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처럼 온몸으로 느껴온 사람들도 흔치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집 아닌 철창속에서, 다리도 제대로 펼수 없는 차고 비좁은 0.75평 독감방에서 기나긴 세월 바깥세상과 격리되여 지내왔습니다. 지친 몸을 벽에 기대고 앉아있느라면 제일 그리운것이 정다운 가족이 기다리는 집이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품에 안겨 궁궐같은 새 집을 받아안았을 때 너무 감격하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과연 이게 내 집이 맞긴 맞는가 하여 무릎을 꼬집어도 보고 출입문이며 침대며, 방바닥이며를 손이 닳도록 쓸어보고 또 쓸어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넘치는 포근한 정과 사랑은 차디찬 감방에서 수십년동안 얼어든 가슴을 녹여주는 당의 따뜻한 사랑이였습니다.

하늘도 감복할 그 사랑의 품에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지난 20년간 온갖 복과 락을 누리며 생활해왔고 또 온 나라 인민이 존엄과 행복을 마음껏 꽃피워오고있습니다.

집은 따스해야 진짜 자기 집입니다. 아무리 집안이 번쩍거리여도 사랑이 없고 정이 없는 집이라면 그게 무슨 집이겠습니까.

우리가 안겨사는 조선로동당의 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은 이 세상에서 제일 따스하고 포근한 사랑의 집입니다.

이번에 온 나라가 목격했습니다. 자연의 광란과 함께 그속에서 펼쳐지는 인민사랑의 전설같은 화폭들을.

이 땅의 남녀로소가 온몸으로 다시금 감동깊이 받아안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따사로운 삶의 요람에 안겨살고있는지, 인민을 안아주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그 손길이 얼마나 다심한것인가를.

인간세상에 자연재해는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올해에는 례년에 없이 폭우가 쏟아지고 강한 태풍이 1차, 2차, 3차로 련속 들이닥치였습니다.

논밭과 거리들이 물에 잠기고 폭우와 강풍에 많은 살림집들이 쓰러져가고, 뜻밖의 재난을 당하고 한지에 나앉게 된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정은 더 말할것 없고 그 광경을 TV와 신문으로 보는 사람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국의 하늘에는 자연의 광란으로 먹구름이 뒤덮였으나 그 검은구름을 헤치고 따사로운 해빛이 온 나라의 피해지역들에 속속들이 비쳐들었습니다.

재해가 닥쳐오기 전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해주고 자연의 광란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에는 또 온 나라가 떨쳐나서 최단기간내에 피해복구를 끝내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준 우리 당의 고마운 손길.

국가정사로 다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주시려고 이 한해에만도 몸소 지도해주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고나면 당보의 지면들을 또 가득 채우군 하던 정치국회의소식.

국가적인 하나의 회의를 준비하고 사회하기도 힘든 일인데 그 많은 회의들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우리 원수님 밤잠인들 주무셨겠습니까. 인민을 하도 극진히 생각하시는 우리 원수님이시여서 인민들이 피해를 입을세라,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을세라 세심히 일깨워주시고 구체적인 대책까지 다 취해주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물피해를 당해 졸지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주민들이 뜬눈으로 한밤을 지새웠을 때 제일먼저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달려가시여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고 피해복구건설장에서 들려온 혁신적인 성과, 주민들이 살게 될 새 살림집풍경이 그리도 보고싶으시여 또 한달음에 피해지역을 다시 찾으신분도 자애로운 원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아늑한 제 집에서 단잠을 자고있을 때 원수님 타신 승용차와 렬차는 강풍을 맞받아 그토록 위험한 길로 쉬임없이 달리였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땀 한방울 바치지 못한 저를 당에서는 공화국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고 걸음걸음 보살펴주고있는데 원수님의 옷자락에 튀여오른 감탕 하나 닦아드리지 못하고 감탕물에 젖은 그이의 신발 한컬레도 말려드리지 못했으니 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정말이지 이해에 고난과 시련은 겹겹이 우리를 에워쌌어도 인민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누구나 목이 메여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것이 우리 당이 응당 해야 할 최우선과업중의 하나이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는 당중앙위원회가 되여야 한다.

—10월 10일이 눈앞에 박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난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새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다.

—지금은 우리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이다.

…

구절구절이 이 가슴에 속속들이 안겨들고 눈물없인 들을수 없는 친어버이의 다심하고 따뜻한 인민사랑의 금언들이였습니다.

그 사랑이 격동의 친필공개서한으로 이어져 수도의 로동당원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이 피해복구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 전화위복의 새 기적들을 이룩하였으니 재해지역들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는 그 많은 행복의 새 집, 선경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일떠서고 조선로동당의 념원이 구현된 사회주의의 본보기마을들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도 안겨살고 온 나라 인민이 안겨사는 너무도 따뜻한 사랑의 그 품.

그 품에 안기면 찬바람이 불어와도 추운줄을 모릅니다. 설사 눈속에 묻혔다 해도 마음은 얼어들지 않습니다.

자연의 해빛이 아무리 따스하다 해도 그 해빛보다 더욱 따사로운것이 천하를 울리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입니다.

그 살뜰한 사랑이 소중히 감싸안아주고있기에 인민의 마음은 언제나 따스합니다.

믿어주고 아껴주는 우리의 큰집

덩지가 커서 큰집이 아니라 주인의 도량이 넓어서 큰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겨사는 로동당의 품,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은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차별없이 다 안아주고 내세워주는 진정한 삶의 품, 세상에서 제일 크고 넓은 포근한 집입니다.

그 품은 천차만별의 각이한 사람들을 모두 뜨겁게 안아줍니다.

아이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시며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는 자애의 손길아래 12년제배움의 꽃대문이 열리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행복의 궁전들도 더 훌륭하게 모습을 드러내여 어린이들이 너도나도 좋아합니다.

병든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베풀어진 당의 사랑과 은정도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설음에 겨워하지 않게,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게 온 나라 곳곳에 훌륭하게 꾸려진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

아이들을 위해 그처럼 좋은 새 집들을 마련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새해의 첫아침에도, 명절날에도 육아원, 애육원, 학원을 찾아주시는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어느해인가는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이 준비한 설맞이공연도 보아주시고 또 언제인가는 우리가 좀더 고생을 하더라도 부모없는 아이들의 가슴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자고 하시며 손수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면서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의 원아들에게 공급할 물고기수량도 정해주시였습니다.

로동당의 손길이 미치는 이 하늘아래에서는 아이들만 기뻐하는것이 아닙니다. 로인들도 즐겁게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늙어서 자식들의 버림을 받고 국가와 사회의 외면을 당해 쓸쓸하고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지어 자살의 길을 택하는 로인들이 이루 헤아릴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인생의 춘하추동을 살뜰히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 있어 사람들이 늙어서도 걱정을 모릅니다.

수도와 지방의 경치좋고 공기맑은 명당자리들마다에 일떠선 최상급의 양로원들에서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라고 노래하며 행복넘칠 여생길을 기쁨속에 그려보는 이 나라의 로인들입니다.

전쟁로병들을 아끼고 위해주는 당의 그 은정도 감동없인 이야기할수 없습니다.

이번 전승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6차 전국로병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감동깊은 연설도 해주시였습니다.

영광의 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쟁로병들을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신 귀중한 스승》, 《천리마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 《숭고한 정신과 넋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이라고 거듭 값높이 불러주시면서 세월의 흐름은 어쩔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분들이 우리곁을 떠나가시였고 여기에 계시는분들마저도 머리우에 흰서리가 내려앉는것을 피하지 못하시는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로병동지들이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당의 크나큰 은정으로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신 대회장에 참석한것만도 가슴이 벅찬데 령도자의 사랑의 연설을 듣고 그이의 뜨거운 인사까지 받아안았으니 북받쳐오르는 감격으로 하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비롯한 대회참가자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수도와 지방을 가림이 없이 온 나라 각지의 인민들을 다 따뜻이 안아주는 자애로운 품입니다.

그가 수도에서 살건 저 멀리 지방에서 살건, 지어 나라의 최북단 한끝과 섬마을초소에서 살아도 모두 한품에 안아 극진히 보살펴주는 우리 당의 넓은 품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풍9호에 의한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도 전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며 이겨내는 고상한 정신도덕적미덕을 사회주의국풍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도 수도에서 지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위하고있는 친위대오인 수도의 핵심당원들을 지방의 피해복구현장으로 불러주시였습니다.

지금도 달리는 렬차안에서 우리 원수님께서 수도의 당원들에게 몸소 한자두자 정히 쓰신 공개서한의 구절구절이 가슴을 울립니다.

《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 수도평양의 따뜻한 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한시바삐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할것을 당중앙은 수도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고대에짚트시대에 첫 우편이 시작된이래 이루 헤아릴수 없는 각이한 편지와 서한들이 사람들의 손과 손을 오갔지만 한장의 공개서한이 온 나라 인민을 그처럼 격동시키고 울린 례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원수님의 서한은 진정 눈물없인 읽을수 없고 격정없인 새길수 없는 인민사랑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분계연선도시 개성시에 비상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였을 때에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나는 개성시당 일군들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인민들이 이 어려운 난관을 신심있게 헤쳐나갈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나도 세계적인 대재앙을 막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개성시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고, 이 말을 꼭 전달해주어야 하겠다는 사랑과 믿음의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량의 옥백미와 자금 지어 갖가지 남새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이렇듯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우리 당의 품, 원수님의 품이기에 설사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생의 길을 걷고 삶을 아름답게 꽃피워가고있는것입니다.

정녕 령토의 크기와 인구수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제일 크고 넓은 우리의 집, 조선로동당의 품입니다.

그래서 인민은 하늘땅 끝이라도 우리 당의 령도만 따릅니다.

인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우리 집

집은 든든해야 그곳에 몸담고 사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사는 사랑의 큰 집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끄떡없이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집입니다.

우리의 집은 핵무기도 뚫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의 귀전에는 전국로병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고, 넘보지 못하게 할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것이라고. …

승리의 신심과 락관, 강한 자신감이 넘쳐나는 그이의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도 마음이 후련하고 배심이 든든해져 민족운명의 구세주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마음속으로 큰절을 올리였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력사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고 정복해온 전쟁의 력사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를 뒤돌아보아도 외세의 크고작은 침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로 인해 몸서리치는 전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이 되고 목숨을 잃다못해 민족의 귀중한 재부도 수없이 파괴되였습니다.

이제는 힘이 약해 민족이 당하던 그 재난과 불행을 영원히 종식시킬수 있게 되였으니 사회주의 우리 집을 든든히 지켜주는 강한 힘은 그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나라에 자금이 넉넉하여 마련된것도 아닙니다.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하도 뜨거워 그 길에서 마련된 내 조국의 값진 재부입니다.

사랑하는 인민들이 침략과 전쟁을 모르고 발편잠을 잘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후손들이 영원히 평화의 푸른 하늘아래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원수님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쉬임없이 걷고걸으신 희생적인 애민헌신의 자욱자욱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젖어듭니다.

우리의 집은 제국주의의 그 어떤 제재압살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대세력들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해치려고 비렬한 제재소동을 수십년간이나 계속해오고있지만 자주의 기상으로 맞받아나가고 자립의 동음으로 사회주의승전고를 울려온 우리의 집입니다. 자주정치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지금은 우리가 드센 정면돌파전으로 적들의 공세를 무용지물로 만들고있습니다.

적대세력들은 인민들을 로동당의 품에서 떼여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발악하지만 우리 인민은 당의 은정속에 자체로 만들어낸 갖가지 질좋은 제품들을 쓰며 희열과 랑만에 넘쳐 투쟁하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떤 세계적인 재난도 이기고 더 큰 행복을 창조해주는 든든한 집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악성전염병이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여 감염자수는 무려 3 600만명계선을 넘어섰고 사망자수는 100여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도처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는것이 통곡과 탄식소리입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TV에서 보도되는 세계적인 전염병전파상황과 정든 혈육을 잃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에 젖은 모습들을 보군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안겨사는 당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품인가를 절절히 깨닫군 합니다.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떠는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가 안겨사는 사랑의 집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예전과 다름없이 평온한 날들이 흐르고있어 온 세계가 주목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럴수록 가슴에 파고드는것은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헌신의 로고를 끝없이 바쳐가시는 어버이의 자애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악성비루스의 침습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온갖 최선의 방역대책들을 다 취해주신 우리 원수님이 아니시라면 지금쯤 저를 비롯한 우리 인민의 생명과 운명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도 고마운 원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민이 무병무탈하여 행복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려고 수도의 명당자리에 평양종합병원을 훌륭하게 일떠세우도록 또다시 배려해주셨으니 온갖 병마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려는 어버이의 그 은정에 더더욱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연의 재난은 해마다 이 땅에도 밀려들고있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원수님의 품이 있어 언제나 마음든든한 인민입니다.

이제 어떤 더 큰 재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운것이 없습니다.

설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대도 우리는 무서운것이 없습니다.

인민을 굳건히 지켜주는 우리의 집, 어머니당의 품이 있기에.

＊ ＊

온 나라 인민의 경축의 꽃바다우에 펼쳐지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명절.

지금 해빛찬란한 10월의 이 하늘아래에서는 당의 은정속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로 될 새 집, 새 마을들이 련속 황홀한 모습을 드러내여 온 나라가 흥성입니다.

기쁨넘친 인민의 춤바다가 어디서나 펼쳐지고 고마움과 격정에 겨워 사람들이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는 하늘땅을 뒤흔들고있습니다.

이제 드넓은 김일성광장으로 장엄히 흘러갈 군중시위의 물결을 그려보느라면 늙은 이 몸에도 열정과 새 힘이 솟구칩니다.

오로지 인민밖에 모르시는 위대하시고 자애로우신 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화목한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인민의 기쁨과 환희는 끝이 없고 10월명절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한없이 은혜롭고 따뜻한 우리 원수님의 품.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살고 후손들도 길이길이 복락을 누려갈 그 품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행복의 우리 집입니다.

시초

10월의 송가

이해의 10월은 어디서 왔는가

리철준

이해의 10월은 어디서 왔는가
해마다 찾아오는 10월이건만
이해의 10월은 류다르구나
뜻깊은 사연 많이 새겨안아
생각깊이 바라보는 산천이여
말해다오, 이해의 10월은 어디서 왔는가

두고두고 못 잊을 원수님 로고의 자욱자욱
어딜 가나 눈물겹게 어려있는 이 땅
인민이 가슴에 그처럼 소중히 안고있는
그 자욱이 련련한 길을 따라
온것이여라 이해의 10월은

열과 정 다해 품으신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한번도 신들메 푸신적 없으신 어버이
인민의 아픔 그리도 가슴에 맺혀
한달음에 달려가시던 사연깊은 길들이
너무도 아득해 끝이 보이지 않느냐
눈물이 가리워 보이지 않는것이냐

차바퀴가 푹푹 빠지는 험궂은 진창길에
서슴없이 들어서시던 우리 원수님
그이 옷자락에 튀여오르던 감탕은
오늘도 우리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저 북변의 해변가
시름안고 걸으신 험한 돌서덜길이여
수백이랴 수천이랴 그 돌들이
무거운 멍울로 맺히고맺혀
지금도 우리 마음 이다지도 저린것인가

피해지역 인민들이 평양의 하늘 바라보며
나를 기다린다고
집잃고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이
이 비바람속에서 자신을 기다린다 하시며
언제 산사태가 무너져내릴지 모를
그 위험천만한 길 헤쳐가신
아, 우리의 원수님

깊은 심려안고 가고가신 길
잠 못 이루시고 때식마저 건너시며
인민을 찾아가신 애민헌신의 그 길이 있어
온 나라가 열광하는 경축의 10월이
인민의 명절로 이 땅에 올수 있었거니

오로지 인민을 가슴에 꽉 채우시고
위대한 우리의 10월명절을 위하여
불철주야 천만헌신 다 하신 우리의 어버이
오, 이 땅의 10월은
원수님의 멸사복무 그 길에서 왔다
무궁한 조국의 해와 달이 그 길에서 온다

나는 시를 쓴다

유현의

10월의 밤
무수한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
나는 붓을 든다
75돐생일을 맞는 어머니
우리 당에 노래를 드리고싶어

시정은 가슴의 심금 못견디게 울리고
사색은 끝없이 날개를 젓건만
어이하랴 안타까운 이 마음
당이여, 무수한 시어 아무리 골라도
내 송가의 한구절도 엮을수 없으니

어머니 노래는 이렇듯 짓기 헐치 않은것인가
서정을 터칠 이 가슴 너무 작은것인가
매일같이 저 푸르른 하늘 바라보면서도
우주의 끝을 내 알수 없듯
생을 맡겨 살면서도 미처 다 헤아릴수 없는
어머니당의 품 위대한 세계여

수령님 창건하신 조선로동당
붉은 당기아래서 선대들이 누린 복된 삶
당의 품은 장군님품이라 노래하며
행복만을 누려온 우리의 삶으로 이어졌고
오늘도 원수님품속에 빛나고있어라

폭제와 강권이 란무하는 세계에서
오직 하나 정의의 기치 휘날리며
75성상 승리만을 떨쳐온 강대한 당
위대한 우리의 국가를 위하여!
이 성스런 애국의 뜻 붉은 기폭에 담아
만복의 기적을 창조하는 어머니당

하기에 그 품에 안겨살아 75년
누구든 불행과 고통에 가슴 뜯은적 없고
그 무엇이 부러워
남의 집 처마밑을 기웃거린적 없어라
세월의 광풍 아무리 모질었어도
결코 운명의 다른 길 선택한적 없어라

진정 우리 당을 무엇이라 노래하랴
당의 위대함 다는 노래할수 없어
고마움과 감사를 대신하는 불덩이같은 눈물
그보다야 더 진실한 시어 어디에 있고
행복해 안기는 품 어려울 때 더 깊이 파고드는
사무친 그 정 어느 명문가가 다 그려낼수 있으랴

노래하고 노래해도 정녕 끝이 없어
75년 기나긴 세월 오늘에 이르도록
끝없이 이어지는 어머니당의 송가
우리 당이 이 땅에 수놓는 전설의 서사시앞에
그 어떤 찬가도 무색해지거늘

아, 원수님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이여
세기를 떨치는 힘과 슬기 불같은 사랑

위대한 인민

김송림

인민!
너무도 평범하게 력사에 새겨졌고
그 력사와 더불어 례사롭게 불리운 부름
우리 수령님처럼 우리 장군님처럼
원수님 가장 소중히 불러주신다
위대한 인민!

인민은 그이께 무엇이여서
인민의 행복 제일락으로 여기시고
인민의 아픔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신가
멀고 험해도 가시는 그 길들이
지새우시는 밤들의 깊은 사색이
어이하여 하나같이 인민에게 닿아있는것인가

물어보자, 정녕 그이께 인민은 무엇이던가
천금보다 귀하고 하늘과도 같다고 하면
인민에 대한 그이의 깊으신 심중 다 알며
이 세상 전부와도 같다고 하면
그이의 심정 다소나마 헤아릴수 있으랴

우리 인민은 세상에 없는 위대한 인민이라고
위대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하지 못함을
그토록 안타까워하시는 원수님
아, 인민이 위대함은
세상에 없는 제일 위대한 어버이
앞에
붓을 들어 진심을 고백하노니
숭엄하고 거룩하고 따사로운 당의 품
목놓아 터쳐도 다 노래할수 없어라
내 한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당의 노래여

원수님과 제일 가까이에 있다

김영일

이게 꿈은 아니더냐
희한한 전설이란 바로 이런것 아니더냐
천지개벽 노래하는 대청리
하늘만 높아지는 가을이라더냐
행복의 웃음소리 높은 10월이구나

누구나 묻누나 예가 바로
태풍피해를 입은 재난의 흉터
곳곳마다 력력했던 그 땅이 옳소?
장대처럼 쏟아지는 폭우
물란리에 잠겼던 그 마을이 분명하오?

뜨거운 사연 터놓자니 목이 메이누나
피해입은 땅 그 땅의 인민을 찾아
원수님 험한 길 달려오신 땅
오실 땐 그리도 급하셨던 걸음
가실 땐 그리도 무거우셨소

걱정없이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어야 한다시며
오신 길 다시 오시여 베푸신 은혜
주신 정 적으신듯 또다시 찾으셨던
원수님 하해같은 정이 차넘친 행복한 마을
대청리는 평양과 가까이에 있어라
원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어라

우리 당을 노래하라면

리송일

나에게 우리 당을 노래하라면
나는 노래하리라
년대와 세기를 넘어 세대를 이으며
우리 가는 백두의 행군길을

이 길에 우리 당의 뿌리가 있어라
백두산밀영사령부에 휘날리는 붉은기
조국과 민족이 생사를 얹었던 그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인민을 새겨
해방조선의 표대로 추켜든 우리 당이거니

이 길없이 어이 노래할수 있으랴
풀뿌리를 씹고 눈보라를 헤치면서도
쓰러지면 열백번 다시 일어나
일제를 쳐부시던 항일빨찌산의 그 정신으로
장장 75성상 만난시련 헤쳐 넘으며
인민의 락원 일떠세운 우리 당의 력사를

이 길없인 정녕 노래할수 없어라
수천만인민 한자식으로 품안고
추울세라 더울세라 뒤질세라 보듬어주며
절해고도에 있어도 힘과 용기 부어주는
백두천지처럼 웅심깊고 백두용암처럼 뜨거운

어머니 우리 당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이 길에서 돌아서면 인민이 노예되고
이 길에서 물러서면 망국이기에
행복한 날에도 준엄한 날에도
원쑤들의 회유앞에서도
백두의 행군길을 굳건히 이어온 우리 당

이 길우에 나붓기는 우리의 당기는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항일선렬들의 그 혁명열, 투쟁열로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
끝까지 완수할 우리 당의 의지이고

백두의 산발 누비는 행군대오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난관을 뚫고
백두산악같이 꿋꿋이 세상풍파 이겨내며
우리 당따라 행복의 미래로 가는
우리 인민의 모습 아니던가

아, 백전백승으로 영광찬란한
우리 당의 어제와 오늘
승승장구할 래일도 이 길에 있기에
나에게 우리 당을 노래하라면
우리 당의 피줄기
백두의 행군길을 노래하리라!

우리는 잊지 않으리라

김태룡

만단사연과 더불어 찾아온 10월이여서
돌아보는 추억 또한 이리도 깊은것인가
묻노니, 흘러온 날과 달이여
너는 행성우에 무엇을 남겼는가
너는 인류에게 무엇이던가

세계를 무섭게 휩쓰는 병마의 위기
그칠새없이 할퀴고 간 자연의 광란으로
어느 하루도 한탄과 비애 멎은적 없었더라
그만큼 쓰라린 아픔도 많이 남겨
재해와 재난의 곡절도 많았던 세계

이 세상 누구든 그렇게 말을 하라
하지만 우리는 말하련다
더 뜨겁고 더 열렬하게
조선의 날과 날은 사랑으로 불탔노라고
위대한 우리의 일심단결을 위하여!
시련을 이긴 이 뜻으로 더 억척같이 뭉쳤다고

졸지에 생의 터전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막막한 눈가에 고이는
그런 타락과 불행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이 품어 꿈만 같이 베푸는 은정에
목이 메여 못다 터친 그 눈물로 말하련다

자신의 진정 불같은 호소로 터놓으시며
태풍이 몰아쳐간 그 험지에서
한자한자 공개서한을 써나가시던 원수님
너무도 간곡해 심장을 치던 그 글발
그날의 끓는 피로 우리는 말하련다

오, 미여지는 가슴에 인민을 품에 안고
힘이 되시고 기둥이 되여주신 원수님
두터운 먹장구름 가르며 그이 찾아오실 때
이 땅 한끝까지 비치는 운명의 빛발을 본 인민
심려안고 그이 잠 못 드신 수많은 그 밤들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바다를 본 인민

그렇다! 흘러온 모든 날들은
더 가까이 우리 당이 인민을 찾아오고
사랑의 열풍이 자연의 광란을 이긴 날
비탄과 절망에 짓눌리는 세계에서
내뻗치는 신심을 발산하며
어버이를 믿고 기적을 떨친 날들이거니

인민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시며
투쟁과 전진, 단결의 날과 날 이끄시여
10월의 승리를 안아오신 우리 원수님
오, 그 은공 우리는 잊지 않으리라
그이 모셔 세월의 끝까지
조선의 앞길엔 영광의 빛발 찬란하리라

수필

당중앙창가의 불빛

어둠이 깃들자 불야경을 이룬 수도의 거리거리는 한폭의 그림을 보는것 같았다.

하늘의 별무리가 지상에 내려앉은듯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불빛들,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들…

지금껏 례사롭게만 보아오던 저 불빛들이 오늘따라 더욱 사색의 노를 저어주며 이 마음에 따스하게 흘러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이해의 10월 10일.

그것은 성스러운 당이 태여난지 75돐이 되는 뜻깊은 명절이면서도 진정한 인민의 명절이다.

세상에 당은 많아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장구한 로정을 수놓아온 참다운 인민의 당은 조선로동당뿐이다.

인민을 위해 기울이는 조선로동당의 사색과 헌신적인 실천은 당중앙창가의 꺼지지 않는 불빛에도 어리여있다.

년초부터 확산되는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해, 전례없이 들이닥치는 큰물과 태풍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이해에 마치와 낫, 붓을 새긴 당마크가 빛나는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는 인민사랑의 회의들이 련이어 열리고 중대조치들도 취해졌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정무국회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확대회의…

자고나면 신문지면들을 가득 채우군 하던 격동적인 회의소식들.

온 나라 인민이 그 보도들을 읽고 그때마다 뜨거운 격정을 삼키였다.

그 뜻깊은 회의들을 지도하시던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인민의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져있다.

국가적인 하나의 회의를 준비하자고 해도 많은 품이 드는데 이 많은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밤잠인들 어이 주무셨으랴.

인민을 단잠에 들게 하시고 자신께서는 그 행복의 요람들을 지켜주시려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집무를 보시고 수많은 인민사랑의 문건들도 한자두자 정히 비준해주시였을 우리의 원수님.

인민을 위한 사색과 실천이 무르익어가는 당중앙창가의 꺼질줄 모르는 그 불빛아래서 인민의 행복이 지켜지고 이 땅에 전변의 새 모습들이 펼쳐졌으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들이 하나둘 현실로 이루어져왔다.

이밤도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창가의 불빛!

하기에 인민은 행복의 노래를 부를 때나 힘든 길을 걸을 때나 언제나 그 불빛을 마음에 안고 산다.

깊어가는 밤과 함께 창가마다 반짝이던 불빛은 하나둘 사라져가건만 은은한 노래의 선률이 나의 마음속 금선을 조용히 튕겨준다.

불밝은 창가에서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그러면 이밤도 내 마음속에
당중앙불빛이 어려오네
그 불빛 우러르며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

노래가 말해주듯이 당중앙의 불빛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복된 삶과 아름다운 미래를 안겨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빛발, 영원한 행복의 불빛이다.

유금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이 얼마전에 개건현대화되여 준공을 선포하였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서 무병무탈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구현된 공장은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생산할수 있게 모든 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고 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있다. 이로써 나라의 의료기구공업발전에 새로운 개척의 한페지가 펼쳐지게 되였다.

평양의 대동강반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일떠서는 평양종합병원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의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이뿐이 아니다.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이 땅 곳곳에서는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늘어가고있다.

수도의 관문인 순안지구와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에 훌륭한 새 집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새집들이경사가 펼쳐져 10월명절을 맞는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례년에 없는 폭우와 강풍으로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들에서도 자기의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희한하게 변모된 새 마을, 새 집들이 련속 일떠서 10월명절을 더욱 뜻깊게 해주고있다.

대청리와 강북리로부터 서해전야를 지나 강원땅에서 동해천리를 꿰질러 북방의 심산유곡에 이르기까지 울긋불긋 아름다운 선경을 펼친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10월의 하늘아래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이 훌륭한 모든것은 인민들이 더 좋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 조선로동당이 마련하고 아낌없이 안겨주는 사랑의 선물, 값진 재부들이다.

인민들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의료기구공업과 보건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실 구상을 안으시고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공장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속에서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려고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착공식장에 나오시여 뜻깊은 연설도 하시였다.

자연이 몰아온 엄혹한 재난으로 인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을 피해지역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한달음에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피해지역들에 찾아가시였고 국가적인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피해를 최단기간내에 가시고 인민들이 이전보다 더 훌륭한 살림집들에서 살수 있도록 거창한 피해복구대전을 펼쳐주시였다.

10월명절을 맞으며 당이 인민들에게 값진 재부, 사랑의 선물들을 안겨주고있는것은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여 이 땅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자랑찬 결실이다.

로동당은 인민에게 크나큰 선물을 안겨주고 인민은 고마움에 겨워 로동당만세를 더 높이 웨치고있다. 이것이 당과 인민대중,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정으로 하나가 된 공화국의 감동깊은 현실이다.

신기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혜택속에 삶의 보금자리를 펴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인민들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수도의 관문 순안지구에 펼쳐진 새집들이경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또 하나의 훌륭한 창조물인 고산과일가공공장

후대들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현대적으로 개건된 교육도서인쇄공장

원화리에 수백세대의 살림집이 일떠섰다.

개건현대화된 묘향산의료기구공장

10월명절을 경축하여 진행된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전인민적인 경사로 성대히 경축하는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는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이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였다.

조명축전장소인 평양제1백화점과 주변의 장대재기슭은 뜻깊은 10월명절을 환희롭게 장식하는 황홀한 빛의 예술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흥분으로 하여 설레이였다.

독특한 3차원다매체와 다통로다중투영기술로 평양제1백화점의 건물벽면에 대형화상들을 이채롭게 펼친 조명축전은 시작부터 관중들을 무아경으로 이끌어갔다.

축전장에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력사를 상징하는 《2020》, 《10. 10》, 《75》라는 수자와 《빛의 조화—2020》의 제명이 현시되였다.

주체사상탑 3인군상이 부각되여 빛을 뿌리고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과 공화국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여러가지 색과 명암대조를 이룬 신비한 빛의 화폭으로 련이어 흘렀다.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는 쇠물폭포와 비료폭포,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인 새형의 뜨락또르,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가 줄지어 나오는 장면들은 관중들에게 우리의것에 대한 자긍심을 안겨주었다.

금파만경으로 풍요한 대지가 현대적인 양묘장, 과일바다를 이룬 과수원으로, 사회주의바다향기 넘치는 황금해의 포구로 엇바뀌며 축전장을 눈부시게 장식하였다.

아이들의 웃음넘친 희한한 물의 궁전과 유희장, 천지개벽된 양덕땅의 새 모습, 문명의 산악 마식령과 대중승마봉사기지,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병원들의 화상이 변화무쌍하게 비쳐지는 속에 관람자들의 탄성이 연해연방 터져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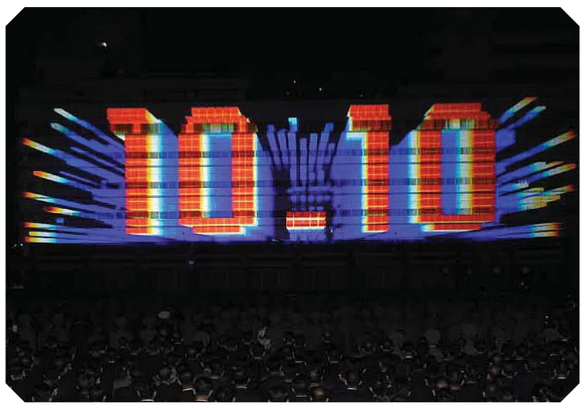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당중앙의 위대한 인민사랑에 의해 자연의 광란이 휩쓴 땅우에 일떠선 행복의 보금자리,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마을들이 10월의 새 풍경으로 펼쳐지면서 조명축전은 절정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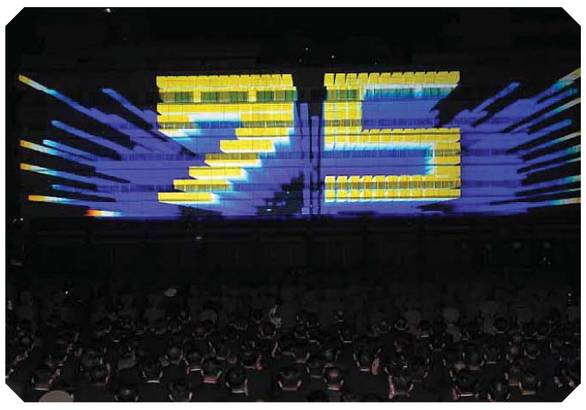
경쾌한 음악선률과 황홀한 빛의 세계가 완벽한 예술적조화를 이룬 조명축전에 매혹된 관중들의 얼굴마다에는 로동당의 품속에서 새 문명의 향유자로 복된 삶을 누려가는 끝없는 환희가 어려있었다.

축전의 마감을 장식하며 경축의 불보라가 터져오르는 화상이 펼쳐지자 축전장에는 경탄의 환성이 울려퍼졌다.

뜻깊은 10월명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로동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빛의 조화로 보여주며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충만시켜준 조명축전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국가도서전람회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국가도서전람회 개막식이 7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공화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행된 1만종에 2만여부의 각종 출판물들이 전시되였다.

그중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로작들이 있었다.

또한 혁명전통 및 5대교양도서, 당정책해설도서, 덕성및 문예도서, 과학기술도서들도 전시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조선우표전람회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조선우표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위대한 향도, 백전백승의 75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람회에는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75년력사를 보여주는 1 000여종의 우표와 평양시안의 우표수집애호가들이 출품한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민족의 태양》,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기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 선포 30돐》 등의 우표들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이 땅우에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이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기념》, 《위대한 령장의 백두행군길》을 비롯한 영상사진문헌을 모신 우표들에 담겨져있다.

전람회장에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세인을 놀래우며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자력갱생, 자력부흥의 거창한 창조물들, 공화국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반영한 우표들도 전시되였다.

개막식이 6일 조선우표박물관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조선우표전람회는 16일까지 진행된다.

본사기자

《우리의 집은 당의 품》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 7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경축장 《어머니생일을 축하합니다》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사랑과 정을 다하여 이 땅우에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영원히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학생소년들의 축하의 꽃물결이 펼쳐졌다.

녀독창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남독창과 합창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련곡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언제나 곁에 있어요》, 《언제나 당을 따라 가리라》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어버이품에 안겨 당이란 아버지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노래부르며 행복하게 자라는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어머니당의 생일을 아름다운 노래춤으로 경축하는 학생소년들의 기쁨과 자랑이 민요제창 《로동당 우리 세상 제일이래요》, 무용 《우리는 앞날의 롱구선수들》 등에 차넘치였다.

공연은 항일아동단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 조선소년단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들로 씩씩하게 준비해갈 학생소년들의 맹세를 반영한 종장 《가리라 백두산으로》, 《당기발따라 날리는 붉은 넥타이》, 《고마운 우리 해님》으로 끝났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를 확신하였으며 미래를 사랑하는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관이 응축된 아이들의 별천지에서 끝없이 울리는 행복동이들의 노래소리는 전인민적인 경사로 흥성이는 10월의 명절분위기를 더해주었다.

본사기자

10월명절을 맞으며 웃음무대공연 진행

위대한 10월명절을 가슴벅찬 환희와 격정으로 맞이하는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가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에서도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웃음무대 《웃음많은 우리 집》 첫 공연이 7일 저녁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수도시민들을 위한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야외극장은 웃음과 랑만이 넘치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생활의 향기를 한껏 풍겨줄 유쾌하고 명랑한 공연을 보기 위해 온 관람자들로 흥성이고있었다.

행복넘친 우리의 생활을 랑만적으로 보여주는 익살과 기지, 해학으로 가득찬 화술소품들과 동물교예, 환상요술 등 특색있는 종목들로 구성된 웃음무대는 경축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우리 인민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좋아하는 인기배우의 만담으로 막을 올린 공연은 시작부터 관람자들의 《웃음집》을 흔들어놓았다.

웃음은 《명약중의 명약》이라는 해학과 함께 무대배경화면에 형형색색의 웃음을 함뿍 담은 사람들의 얼굴모습이 펼쳐지고 유쾌한 웃음소리들이 증폭되자 온 극장은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창조와 로동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근로자들과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행복의 별천지들에 차넘치는 인민들의 희열을 생동하면서도 인식교양적의의가 있게 반영한 종목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사회주의 우리 집의 참모습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출연자들이 재치있는 연기로 즐거운 우리 생활의 일단을 재현할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요란한 폭소와 재청을 요청하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관람자들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높아가는 가운데 《잣나무동산》팀과 《꽃동산》팀의 《선수》로 나선 곰들의 권투경기도 볼만 하였다.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재능의 꽃을 활짝 피우며 앞날의 예술인재로 자라는 음악신동들의 아동가요연주와 인민의 문화휴식터마다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해가는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생활을 반영한 모래그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환상요술도 웃음무대를 보다 이채롭게 하였다.

공연의 마감을 장식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장내에 울려퍼지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에 행복의 웃음소리를 더 높이 울려주는 우리 당의 은덕을 절감하며 로동당시대의 영원한 주제가를 다같이 열창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특색있는 웃음무대를 펼친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웃음무대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에 안겨사는 인민의 밝고밝은 웃음은 세세년년 영원하리라는 진리를 새겨주며 관람자들에게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기였다.

공연은 16일까지 계속된다.

본사기자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